

네 여자의 ‘취중진담’…드라마인듯 다큐 같은 예능

‘얼큰녀’ 술 매개로 고민 속풀이
‘회가싫’ 진짜 같은 모큐멘터리
사실감 더한 연출 시청자 호응

가벼운 터치, 유쾌한 시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촌철살인의 의미는 크고 여운도 진하다. 특정한 형식으로 묶이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최근 소소한 일상 속 고민을 떠올리게 하며 그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아가게 하는 두 편의 방송프로그램이 화제다. 10월24일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화자되고 있는 KBS 2TV ‘회사 가기 싫어’와 그 뒤를 이어 25일 첫 방송한 케이블채널 KBS Joy의 ‘얼큰한 여자들’이다. 특히 고정적인 프로그램 제작 및 연출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오히려 사실감을 더함으로써 시청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 ‘얼큰한 여자들’-속 풀리는 수다
연기자 박하나, 개그우먼 김지민과 김민



KBS Joy ‘얼큰한 여자들’과 KBS 2TV ‘회사 가기 싫어(오른쪽)’,

경, 모델 송해나 등 네 명의 30대 여성연예인들이 술을 매개로 자신들의 현실적 고민을 솔직담백하게 털어놓는다. 다만 이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드러내는 고민과 헛헛함은 각자에게 주어진 가상의 캐릭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절박한 연기자(박하나), 배우를 꿈꿨다가 이전 사랑과 일상에 지친 회사원(김지민), 성우가 되고 싶은 비정규직 텔레마케터(김민경), ‘올로’만이 행복인 피팅모델(송해나) 같은 식이다.

이들은 각기 처한 일상의 태두리 안에서 겪어야 하는 다양한 고민과 속내를 술잔과 함께 나누며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드러

낸다. 토크와 드라마타이즈를 뒤섞어 놓은 형식은 이들의 고민과 속내가 현실 속 30대 여성들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어우러져 시청 공감을 높이는 중요한 밑받침이 된다.

● ‘회사 가기 싫어’-실제인 듯, 아닌 듯

한 중소기업의 영업기획부를 배경으로, 제목 그대로 ‘회사 가기 싫어’ 직장인들이 그 래도 가야만 하는 회사에서 겪는 일상의 애환을 실감나게 그렸다. 임원에서부터 말단 사원까지 등장인물들은 하루하루 좌충우돌 해프닝을 벌이며 월급쟁이로서 안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고충을 현실적으로 드러냈다.

‘회사 가기 싫어’는 허구의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보이도록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는 ‘모큐멘터리’ 형식을 표방했다. 제작진은 드라마 형식의 픽션 위에 등장인물들은 물론 실제 전문가 인터뷰를 비롯해 자막과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한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를 통해 때로는 시트콤이나 드라마, 또 때로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안기며 시청자의 공감을 얻었다. 김국희, 서혜원, 소주연, 김중돈, 이황의, 지춘성 등 안방극장에서 크게 낯익지 않은 연기자들을 기용해 사실감을 더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워너원·장영·드렁큰타이거…이제는 안녕

잇딴 그룹 해체 소식에 팬들 아쉬움
멜로망스도 입대 문제로 활동 중단

“박수칠 때 떠날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아이돌 그룹 워너원, 장기하와 얼굴들, 드렁큰타이거, 멜로망스 등 인기 가수들이 잇달아 이별을 고하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처해진 상황과 이유에 따라 이번 활동을 끝으로 해체 혹은 활동중단 등을 선언했다. 비슷한 시기에 찾아온 ‘이별 예고’에 팬들의 아쉬움만 커지고 있다.

“해체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해 눈길을 끈 워너원은 ‘1년6개월’이라는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 그룹인 만큼 예정대로 12월31일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 일부 멤버들은 내년 1월 열리는 음악시상식에 참가하지만, 공식적으로 12월31일 해산해 각자 소속된 기획사로 돌아가 원 그룹에 합류하거나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데뷔할 예정이다.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도 12월31일까지 활동하고 10년 만에 해체한다. 2008년 싱글 ‘싸구려 커피’를 시작으로 꾸준히 음반 발매와 공연을 펼쳐온 이들은 1일

발표하는 마지막 앨범인 5집 ‘모노’ 활동, 12월29~31일 열리는 콘서트를 끝으로 공식 해체한다. 이들은 최근 SNS를 통해 “2019년 첫날을 기점으로 저희 여섯 명은 각자의 길로 가게 된다. 가장 멋진 모습일 때 가장 아름답게 밴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해체 후 싱어송라이터, 연주자, 프로듀서, DJ 등 다른 형태의 아티스트로 팬들과 만난다는 계획이다.

‘힙합의 대가’로 불리는 드렁큰타이거도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을 들을 수 없게 됐다. 래퍼 타이거JK는 14일 드렁큰타이거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앨범을 발표한다. 힙합계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드렁큰타이거의 음악 고유의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성듀오 멜로망스는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 멤버 김민석이 조만간 입대해야할 상황이라 두 사람이 펼치는 무대는 2~3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다른 멤버 정동환이 한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오늘을 마지막으로 멜로망스는 당분간 공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해체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소속사 측이 부인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마약왕’ 송강호 vs ‘PMC:더 벵커’ 하정우 vs ‘스윙키즈’ 강형철 감독

홍행 보증수표 세 남자…12월 스크린 맞대결

연말 극장가를 달굴 한국영화 라인업이 완성됐다. 배우 송강호와 하정우, 흥행불패의 연출자 강형철 감독까지, ‘티켓파워’에 관련한 빠질 수 없는 3인의 대결이 12월 극장가에서 펼쳐진다.

송강호는 오랫동안 주연영화 ‘마약왕’(감독 우민호·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의 연말 개봉을 기다려왔다. 지난해 여름 ‘백시운전사’를 내놓은 이후 다양한 영화에 출연해오면서도 개봉 일정 탓에 1년 넘도록 관객과 만나지 못한 그가 1년4개월 만에 내놓는 신작이다. ‘마약왕’은 1970년대 마약도 수출하면 애국이 된다고 믿는 밀수꾼의 이야기다. 실제 마약으로 시대를 풍미한 이두삼이 모델이다.

하정우와 강형철 감독도 오랜 시간과 열정을 쏟은 영화로 이에 맞선다. 하정우는 ‘PMC:더 벵커’(제작 퍼펙트스튜디오를), 강형철 감독은 ‘스윙키즈’(제작 안나푸르

나필름)를 나란히 공개한다.

하정우의 ‘PMC’는 DMZ 지하 30미터 비밀병커에서 벌어지는 90분간의 전투를 리얼 타임으로 담아낸다. 테러범과 뉴스 앵커의 실시간 대치를 다뤄 558만 관객을 모은 ‘더 테러 라이브’의 김병우 감독의 신작이다. 제작진은 “국적도 명예도 없이 전쟁마저 비즈니스로 여기는 글로벌 군사 기업 PMC의 이야기”라고 소개하며 “한국영화에서는 처음 다뤄지는 신선한 소재”라고 강조했다.

도경수 주연의 ‘스윙키즈’는 극의 배경이 1951년이지만, 전쟁의 아픔대신 춤과 음악을 향한 열정으로 뭉친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무엇보다 ‘과속스캔들’부터 ‘씨니’ ‘타짜:신의 손’까지 그간 연출한 모든 작품을 흥행으로 이끈 강형철 감독은 그 이틀만으로도 관객의 기대를 높이는 존재. 이번에는 자신의 장기인 음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연기자 윤은혜가 3년 전 불거졌던 표절 논란에 재차 사과했다. 윤은혜는 10월31일 첫 방송한 드라마 ‘설렘주의보’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3년 전 공식 석상에서 표절 논란에 대해 사과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부족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머리를 숙였다. 윤은혜는 앞서 2015년 중국 동방위성TV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출연해 디자인 표절 의혹에 휩싸여 비난받았다. 각종 비난이 쏟아진 후에도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방송 활동도 하지 않았다. 5년 만에 국내 방송에 복귀한 그는 “실망하게 해드려서 이번 작품이 더욱 긴장된다.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연예

13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컷



화장실 셀카의 위력?

그룹 엑소의 백현이 ‘꽃보다 아름다운’ 셀카로 팬들을 유혹한다. 녹색 후드셔츠를 입은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난다. 백현은 팬들에게 ‘SM 슈퍼아이돌리그 시즌1’ 시청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지만 팬들은 정작 “너무 예쁘다” “꽃도령” “꽃미남” 같은 댓글을 달고 있다. 같은 소속사 선배인 슈퍼주니어의 멤버 예성이 “화장실에서 찍었네”라고 쓴 댓글이 눈에 띈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엑소 #백현 #꽃미남 #꽃도령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대세 콘텐츠 좀비영화 원조는 1932년 미 영화 ‘화이트 좀비’

영화 ‘부산행’이 개봉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서양에선 익숙하지만 동양에서는 낯선 존재인 좀비를 내세운 한국영화가 과연 관객의 선택을 받을지 의구심이 앞선 게 사실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좀비는 섬뜩한 외형과는 대조적으로 영화계에서 인기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좀비의 출발은 중남미와 서인도 제도에서 구전된 이야기로 알려지고 있다. 살아있는 시체를 지칭한다.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존재, 좀비가 영화에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건 1932년 미국영화 ‘화이트 좀비’부터다. 이후 자주 공포영화에서 모습을 드러내왔다.

좀비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주요 캐릭터로 활용되기 시작한 때는 2000년대 들어서다.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를 비롯해 ‘새벽의 저주’ ‘나는 전설이다’ 등이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한국영화에서는 2006년 ‘어느 날 갑자기:죽음의 숲’, 2012년 ‘무서운 이야기:앰블런스’ 등 옴니버스 공포영화에 간간히 등장하며 존재를 알려왔다.

2010년 시작한 미국드라마 ‘워킹데드’ 시리즈는 전 세계에 좀비 신드롬을 촉발한 결정적 작품으로 통한다. 원인 모를 재앙으로 인류가 사라지다시피한 상황에서 만난 인물들이 연대하고 또 대립하면서 세상에 창궐한 좀비 떼와 맞서는 이야기다. 시즌1이 시작하고 9년이 지나 현재 시즌9가 방송 중일만큼 인기가 식지 않는다.

좀비의 매력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놓인 극한의 상황을 통해 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부산행’으로 1156만 관객 동원에 성공, 국내서도 좀비 열풍을 일으킨 연상호 감독은 “좀비의 매력은 존재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공포”라고 설명했다. 이해리 기자

편집 | 김형조·김대건 기자